

# 피부색의 건강의 표

인체 피부는 종족, 생활환경에 따라 각기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다. 열대지방의 종족은 과도한 자외선 영향으로 검은 피부를 갖고 있으며 온대나 한대지방에 사는 종족은 희거나 누렇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피부 모세혈관의 발달로 붉은 색을 띠어 홍인종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들 특징적인 피부색깔도 한가지 색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백인이라 하여 대리석 같이 새하얀 색깔만의 피부가 아니요, 황인종이라고 온통 누런 빛깔만이 아니다.

피부는 인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장기로 외부환경이나 정신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원래의 색깔을 잃거나 다른 불균형한 색깔이 생겨 얼룩지는 경우가 있다. 피부색깔의 변화는 그 종류도 많고 생기는 원인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피부색깔의 변화는 선천적인 것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몽골리안계통 민족의 특징인 몽고반점이다. 태어날때 둔부에 커다랗게 생겨있는 시퍼런 반점은 자라면서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여서 문제가 안된다. 백인들에게 특징적인 주근깨도 선천적인 것이 많아 유전인자가 관여되고 있지 않나 추측되고 있다.

그외 동양인 특히 일본인에게 많은 오타모반, 이토모반도 선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얼룩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생명과는 관계없는 미용상의 문제다. 나이가 들에 따라 피부 노화현상으로 남의 눈에 잘 띄는 안면부에 시커먼 점이 수없이 나는 검버섯, 20~30대부터 여성의 얼굴에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미, 사마귀에 의한 잡티 등은 예뻐지려는 여성의 욕망을 결정적으로 망쳐놓는다.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변조는 단연 기미가 으뜸을 차지한다. 큰 수술을 받은 후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남자에게도 간혹 나타날 수 있는 기미

는 눈 가장자리, 뺨, 턱밑 등의 피부를 연한 갈색으로 물들인다. 기미의 원인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햇빛 속 자외선 즉,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중 290~320나노m(1나노m = 10억분의 1m)의 영향이 가장 크고 이 영향에다 피임약을 먹는다든가 호르몬제를 써야하는 병에 걸린 사람, 매일같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 안정이 안되는 사람에게 기미가 잘 낀다.

날때부터 눈가나 관자놀이 근처에 퍼렇게 누런 이상한 색깔을 가진 모반이 생겨 있는 사람의 고민도 말할 수 없이 크다. 검버섯은 늙었다는 상징으로 고민이며 화장이 잘 안받고 피부에 잡티가 많은 사람은 바이러스에 의한 사마귀도 한번쯤 의심해볼 일이다.

이런 피부변조는 정신적인 부담도 커서 그사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어 미용피부전문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처음에는 페놀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초기의 레이저는 붉은 코 등 싹뿔출혈증에 유의하게 사용되기도 했으나 피부의 멜라닌색소세포를 자극, 시커멓게 되는 후유증을 남겼다.

트리클로로아세트 산을 피부에 발라 인공화상을 일으켜 각질층을 탈락시키는 치료법이 '깜짝쇼'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완전히 없애는데는 별 도움이 안됐고 원인제거없이 표면만 탈색시키는 결과로 재발의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외 요술의 빛이라는 레이저도 유의한 효과를 내고 있으나 과대선전만큼 효력은 없는 실정. 그러나 이들 노력 모두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일차 시술받은 후 정신적 스트레스의 회피, 고른 영양섭취 등 평소에 피부관리를 잘 한다면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①7



국 홍 일  
(피부과 전문의)